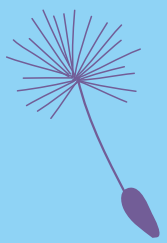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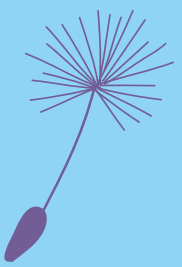
ISSN 2384-373X

달서문화만개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

2021 Vol. 13





달서문화재단

달.서.문.화.만.개.
여름을 지나는 길목
자라나는 모든 것들의 향기가 아찔하다.

지금은 애써 눈매를 치장하지 않아도
이성의 가르마를 정돈하는 정오.
지루한 졸음은 잠깐이다.
찬찬히 물을 올리고 꽃을 심고
서로를 걷어차는 완력은
다시 희망과 연대를 합창한다.

달.서.문.화.만.개.
두께가 다른 시간조차 이곳에선 함께 젊다.
들썩이는 어깨에 햇살이 차오른다.

달.서.문.화.만.개.

Contents
Vol. 13

문을 열며

06
달서생활문화센터
꽃피는 청춘 일기장

Theme 1
'위드 코로나' 지역 문화예술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

Column

12
예술의 존재, 예술가의 존립 문화공간의 새로운 역할–최현묵

18
변화의 시대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마라–박지운

22
새로운 기술 기반의 시대 상상하는 것이 미래다–남인숙

Focus

26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축제의 새로운 장이 열리다

Theme 2
문화도시를 만드는 작은 움직임
'달서 문화히어로즈를 찾아서'

문화도시를 만나다

32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34
사회적협동조합 와룡

36
성서공동체FM

38
한국파릇하우스

40
문화예술교육연구회 가온협동조합

42
모두가족품앗이

44
상화로 도시재생문화기행 주민협의체

46
에코스타트

48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

50
(주)운동명가 조아짐

Forum

52
문화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한 제1차 생각나눔포럼

Review & Preview
문화예술이 만개하는
행복 문화발전소, 달서문화재단

58
지금 문화재단은

60
Review

62
Preview

69
Academy

People & Commune
문화가 꽃피는 매력도시 달서
예술의 향연 속으로

예술가를 만나다

72
일상 속 예술 무지개를 띄우다
브리즈뮤지컬컴퍼니 손현진 대표

74
현대무용 문턱을 낮추고
카이로스댄스컴퍼니 김영남 대표

문화연구소

76
예술이 생활 속으로 달서구 우리동네미술 프로젝트

달서생활문화센터 꽃피는 청춘 일기장

'꽃피는 청춘 일기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성취감과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꽃꽂이, 디카시(디지털카메라+시) 창작, 캘리그라피를 체험하고,
결과물을 한데 모아 나만의 아트북(Art Book)을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해돋이

올해는 두류정수장 정자에 오른다
코로나 팬더믹 5명 이상 모임금지령
멀리 있는 막내가 빠져서
어차피 4명이라도 오늘은 살갑다
담요 쓰고 발 동동 기다리던 바다의 소원도
친정아버지와 삶은 밤 속에 벌레 찾은
그 산의 소망을
우리는
함께 꿈꾸며 살아낸다

김기남(54세)

사랑초

작년 가을에 어더온
사랑초 하분 흑속에 무더둔
씻앗이 봄이 되니 꽃이
겁나게 너무 예쁘다
내 청춘도 활짝 피어라

김분도(74세)

할미꽃

곱디고운 그 자태로
청춘의 황홀함은 뒤로한 채
애달픈 그 이름
기억 한웅큼 꺼내어
생각에 잠기누나

남순옥(69세)

장미

그대는
어느 별에서 온 공주
왜 이렇게 이쁘니
너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나랑 칭구할래

우영숙(67세)

달서생활문화센터 '꽃피는 청춘 일기장'에서 창작된
디카시는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감성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띄어쓰기, 맞춤법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Theme 1

‘위드 코로나’ 지역 문화예술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_지역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의 존재, 예술가의 존립 문화공간의 새로운 역할*

글_**최현묵**(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코로나 일상

이 글을 쓰는 2021년 5월 25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은 100명당 21.5명이다. 영국이 가장 많은 90.7명이고, 미국이 85.4명, 한국이 10.8명이다.[1] 집단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약 75%의 인구, 약 58억 명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현재 속도로 보면 약 7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일부 국가는 일찍 끝날 수 있겠지만, 백신 수급에 있어 국가 간 차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코로나 해방은 몇 년이 걸릴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에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제부터 인류는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즉 코로나 일상의 시대로 가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 스노든 교수는 "전염병의 공격을 받는 사회는 고유한 취약성이 있기 마련"이기에, "전염병은 항상 기표들(Signifiers)"이라고 하였다. 또 서울대 안재원 교수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략) 실은 사람들의 욕망이다. 욕망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코로나도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강제로 없앨 수도 억누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그 욕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기에, 코로나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다.[2] 결국 전염병은 단순한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혹은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역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자연 파괴, 빈부 격차, 도시화... 등의 결과이다.

결국 이제 인류는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코로나 혹은 이와 유사한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혁명적 시도가 있지 않는 한, 인류가 지금까지 성취한 과학적, 경제적 성취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문제와 답은 선명하다. 코로나 일상을 전제로 우리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술 역시 그렇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2021 수성구미술가협회 기획세미나 발표원고 재수록

코로나와 함께 예술

역설적으로, "감염병은 교류와 번영의 산물이다."[3] 14세기 흑사병은 팍스 몽골리카(Pax Mogolica)의 결과이며, 잉카제국의 멸망은 유럽인과의 만남이다. 스페인 독감 역시 중국, 캐나다, 미국, 유럽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접촉과 교류의 결과다. 모두가 알다시피,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당시 전쟁 중이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감염병의 실체를 감추었으나, 중립국이었던 스페인만이 실상 그대로 발표하는 바람에 마치 치명적인 독감이 스페인에서만 발생한, 혹은 스페인에서만 유행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역시 무오년 독감(戊午年 毒感)으로 한국 인구 1,795만 명 가운데 16.3%인 2,994,000명이 감염되어 그중 14만 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1.8%였다. 즉 시차는 있지만 스페인 독감 역시 20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이동과 교류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감염병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숙명이라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에 굴복하기보다는 감염병을 극복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감염병을 이유로 일상의 삶을 포기하거나 유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예술 역시 그렇다. 예술가는 오히려 예술을 통해 감염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과거의 예술가, 예를 들어 흑사병 시대 《데카메론》의 보카치오, 스페인 독감으로 죽기 직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 함께 있는 가족의 그림을 그린 에곤 쉴레, 그리고 《페스트》의 알베르 카뮈... 등. 이러한 작품과 작가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예술을 포기할 수 없다. 동시에 예술가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혹은 격리가 주는 반예술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계속해야 하고, 미학적 탐구를 멈춰서는 안된다. 이는 바로 감염병이 주는 방역과 격리를 해체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일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Butterfly Rainbow〉 데미안 허스트, 2020

이와 같은 노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작가로는 영국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코로나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영국 보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무지개 미술'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지개 그림을 다운받아 창문에 붙이도록 하였다. 이는 자신의 무지개 그림이, 작품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 연대의 표식으로 활용되기를 소망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예술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코 예술가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 모든 분야, 특히 우리 사회 전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어느 한 개인의 취미와 탐닉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포용하는 공공

1) 코로나 백신 : 한눈으로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BBC KOREA,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66227
2) 장문석, 「코로나19와 역사적 시각에서 본 감염병」,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1)』, 한국연구재단, 이슈리포트 2020 12호, p.12, 재인용
3) 장문석, 앞의 논문, p.14

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 정책으로 감염병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예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4] 동시에 이제는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도 제도적으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공연과 전시를 비대면으로 개최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으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문화공간은

문화공간의 사전적 의미는 '각종 문화 행사 따위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놓은 공간'[5]이다. 즉, 문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수용될 수 있는 장비 등 조건 등을 갖추어 둔 시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문화시설'의 의미와 연관시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항목의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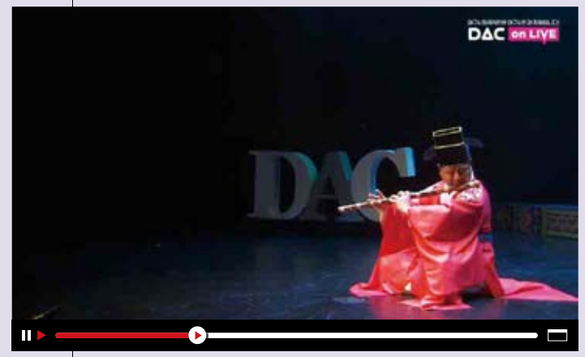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 · 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는 문화시설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만이 아니라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문화시설은 단순 공연 혹은 전시만이 아닌 창작의 영역도 아우르는 것이다.

시민회관, 영화관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던 공연장을 제외하고 순수 공연예술을 위해 건립된 최초의 문화공간은 1981년 서울 동승동 대학로에 건립된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이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건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산하 극장으로 건립되었다. 이때 사용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는 이후 문화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제5공화국 당시 추진되어 전국 각지에 건립되기 시작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의 효시가 되기도 하였다.

사실상 이때부터 본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단순히 대관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기획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문화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2000년 이후로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도 자체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문예회관 혹은 아트센터를 갖추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국 문예회관 수는 255개이며, 공연장 수는 421개이다.[7] 물론 여기에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과 같은 전문 문화공간은 별도의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비하여 그 본질적 기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공연과 전시를 위한 예술인들을 위한 대관, 일부 부정기적인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예술아카데미와 같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결국 최초 문예회관 건립 당시 내세웠던 건립 목적, '공연예술 진흥과 공연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 공간의 확보,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수예술단체들에게 발표 공간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시설의 조성'[8]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그동안의 문화공간은 생산자인 예술가와 소비자인 관람객을 만나게 해주는 콘택트(Contact) 기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자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언택트(Untact) 상태가 된 것이다.



힘내요! 대구, 희망을 노래하다
DAC on LIVE
대구문화예술회관 유튜브
[DAC on Live] 대구시립국악단(2020. 4. 21.)

이제 문화공간은 : 온택트를 넘어 멀티택트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20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졌다. 이어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표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국립기관 등 예술단체에 대한 잠정 운영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공간에 대한 폐쇄가 잇달았다. 당시 발표되었던 '잠정 휴관'이 거듭 '연장'되더니 결국 1년 가까운 시기 동안 폐쇄 아닌 폐쇄 상태를 거듭하게 되었다.

반면 이 시기 동안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공연과 전시였다. 코로나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대구에서 역설적으로 최초의 온라인 실시간 공연이 실시된 것이 2020년 3월 2일이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된 〈힘내요! 대구, 희망을 노래하다. DAC on Live〉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1일 1팀이 10일 동안 온라인으로 공연함으로써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방역당국자들을 위로하고, 또 갑자기 생계 활동이 끊어진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을 통해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9] 이 기획은 그 이후로도 계속 거듭되어 4월 17일까지 30회 공연을 하였다. 그 이후 온라인을 통한 공연이 서울 예술의전당, 광역 문화예술회관 등으로 이어졌으며, 대중예술계와 네이버 등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연을 전 세계로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예술계는 언택트(Untact)에서 온택트(Ontact), 즉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코로나 일상을 맞이하여 비대면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통해 2021년에는 '온라인 ·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에 49억 원,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에 32억 원, '문화예술 실감 서비스 기술개발(R&D)'에 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전시 분야는 이미 2020년 KIAF와 홍콩 아트바젤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온라인 뷰잉룸(Online Viewing Room, OVR)은 갤러리와 아트페어가 오프라인 전시를 대체하고 보완하는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전시와 판매를 위한 웹페이지인 온라인 뷰잉룸은 작품 이미지와 정보, 작가의 인터뷰 영상 등의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전시하고, 작품 가격을 대부분 공개하며, 문의를 거쳐 구매로 이어지는 방식

4)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이 대표적이다.
5) 네이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61ff9b34b5a4930a82893f5f84646d1 (출처 : 『우리말샘』)
6)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9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P.7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board/view/772?bid=&cid=1601620&sf_icon_category=
9) 최현묵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matti/221833276830, '힘내요, 대구. 희망을 노래하다! DAC on Live를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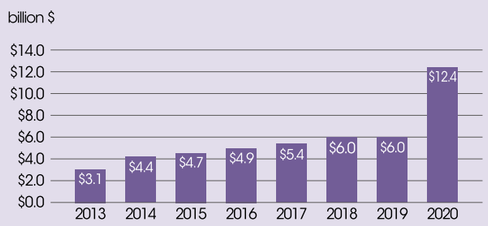
을 취한다. 갤러리들은 이와 함께 작가를 프로모션하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한다."[10]

아트바젤이 2021년 3월에 발행한 〈아트 마켓〉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미술 작품 판매 총액은 501억 달러로 2019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판매는 124억 달러로 2019년 59억 달러 대비 2배가 넘는 액수이자, 전체 거래액의 25% 수준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미래가 현재에게 디지털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라."[11]고 보낸 메시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온라인 미술품 판매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래 미술품 시장의 주요 마켓 툴(Market Tool)이 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 문화공간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공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대구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내 다면 영상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5G 기반 공연 실황 온라인 공유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설이 완비되면 팔공홀 내부 사면에 초고화질 영상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온라인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션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대구미술관의 경우에는 소장품 및 작가들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관람객들에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공감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시대에 문화공간이 준비해야 할 일로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다. 공연이든 전시든 단순히 관객들에게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고화질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덧붙여 작가

2013~2020 온라인 미술품 판매 상황



출처_www.k-artmarket.kr/member/board/Report_Board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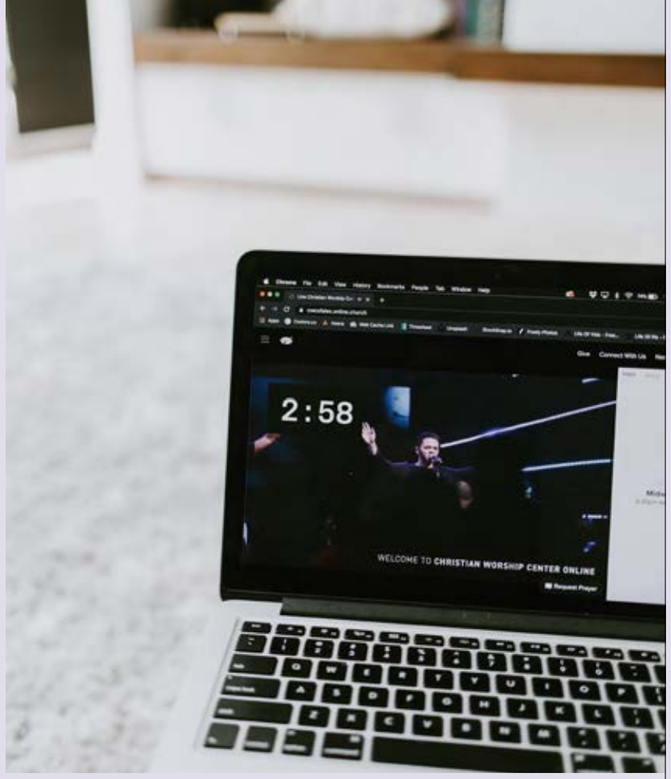
의 의도, 평론가와 관람객의 반응, 제작 과정에 대한 스케치 등을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관람 시기를 놓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사 기록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아카이브는 단순히 지식을 저장하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활성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과거-현재-미래의 공간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실감나는 현실이 될 것이다.

결국 오늘날 문화공간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예술가와 관람객들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자 역할에서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연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멀티택트(Multitact)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안으로 선택했던 온라인 중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기반의 공연 및 전시 방안을 전개함은 물론, 아카이브와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이 예술 분야에 미칠 영향을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획 및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12]

결론 :
예술의 존재, 예술가의 존립

장 폴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l'existence précède l'essence)"라는 말을 예술가와 예술에 접목하여 생각해보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존이기에 본질이 규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술가 역시 실존 그 자체다. 그리고 예술은 그 예술가의 실존으로부터 창조된 결과, 즉 본질이다. 거칠게 정리하면, 예술가가 있어 예술이 있는 것이지, 예술이 있어 예술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곰브리치가 쓴《미술사》첫 문장 "예술 따위란 없다. 예술가가 있을 뿐이다."("There really is no such thing as art. There are only artists.")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문화공간의 선택은 명확하다. 이제는 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멀티택트)이 필요한 만큼, 예술가의 존립(혹은 생존?)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새롭게 시도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은 예술가 존립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



으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술 혹은 미술 작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미술인들을 지원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사업' 역시 공연예술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하여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이 모든 것이 예술가 존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또 이와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사업도 일부 있었다. 그중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온라인 공연 '힘내라 대구' 온라인 공연 시리즈, 대구미술관의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지원 프로그램 '나의 예술세계', 수성문화재단의 '예술인 기(氣) 살리기', 달서문화재단의 '힘내요! 대구예술인' 그리고 일부 공연장에서 실시한 공연료 사전 지급 등의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실시한 사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그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지역의 공공 문화공간도 과감하게 예술 활동 본질과 예술가 실존을 가능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실시해야 한다. 지역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결과로 보답받기 때문이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예술계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압박한다. 예술의 의미와 범위, 그 자체도 변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생존 방식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과 내용도 명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예술은 변하고 있으며, 예술가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들의 문화공간은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의 존재는 어떠할 것이며, 예술가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답은 모든 문화공간들이 예술의 본질과 예술가의 실존을 진정으로 고민할 때 가능해진다. 진짜 이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정의하고, 예술가의 존립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10) 이경민, 「미팅룸, 온라인으로 이동한 미술시장」, https://ggc.ggcf.kr/p/5fcedbfef72baa7d0ff558ce
11) 패스트 캠퍼스, 「온택트 시대, 데이터 전쟁이 가져온 산업과 교육의 변화 -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가 전하는 트렌드 인사이트」, Nov. 23, 2020, https://brunch.co.kr/@fcb2b/25.
12) 지난 5월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승리한 대국 전체와 기보를 디지털화한 NFT(Non-fungible token)가 2억 5천만 원이 판매되는 등 최근 디지털 파일이 예술 분야에 적용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NFT 예술 분야 거래액은 약 3,000천억 규모에 이르고, 이는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아트바젤 홍콩에 출품된 코디최의 디지털 회화 'Animal Totem - Stolen Data - Tiger #00'가 7만 이더리움(한화 약 2,000억 원)에 책정한 것을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보기에는 세계시장에서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_공연예술 이야기

변화의 시대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마라

글_**박지운**(대구시립합창단 예술감독)

#1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베로나의 아레나극장 등을 포함한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던 맹수들이나 검투사들의 경기는 '빵과 즐길 거리'를 달라고 외치던 로마인들의 흉폭성(스트레스)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 우민화(친서민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한편 그러한 경기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현대적 스포츠가 바로 '투우'다. 스페인 대도시마다 오페라극장처럼 산재해 있던 투우장에서는, 찌는 듯한 태양볕 아래에 모인 수만 명의 관객들이 피를 흘리는 소의 심장을 관통시키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젊고 잘생기고 멋진 체격을 가진, 또 이글거리는 검은 눈동자를 소유한 마타도르들에게 피끓는 환호를 보내며 지난 수백 년을 즐겨왔다.

15세기까지 남부 스페인을 지배하던 아랍인들로부터 받아들인 '투우'는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만개(滿開)하고, 스페인에 정착한 집시들의 춤인 '플라멩코'와 더불어 서유럽에 속하면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스페인을 늘 이국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만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자 그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였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4막을 보라. 1800년대 중반 당시 투우장의 풍경을 상상하게끔 하는 세밀한 묘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또한 '라 트라비아타'의 2막 2장 투우사들의 합창에서는 Piquillo라고 불리는 젊고 잘생긴 Matador가 등장하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안달루시아 지방의 한 처녀가 "5마리의 소를 하루만에 쓰러뜨려 주면 내 마음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듯 투우사는 한 번 스타가 되기만 하면 막대한 돈과 미인들을 차지할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스페인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어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이었다.

#2

하지만 1900년대 말부터 각국의 동물보호협회로부터 갖은 비난이 쏟아지며 잔인한 경기를 중단하라는 시위가 끝이지 않는 바람에 스페인뿐 아니라, 투우가 성행하는 스페인어권 국가들인 멕시코를 비롯하여 중남미 각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끊어지며 이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라 하겠다.

런던에 처음으로 택시가 도입되었던 1900대 초반, 그전까지 런던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이던 마차의 마부들의 저항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지만 마차는 이제 유럽의 관광지에서나 호기심으로 잠시 만끽하는 즐거움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Rossini 오페라 Il barbiere di Siviglia(세빌리아의 이발사)에 등장하는 고도시 스페인명 '세비야(Seville).'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가로는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이다. 직업은 이발사지만 안 끼는 데가 없고 또 해결 못하는 것이 없어 여기저기에서 늘 그를 불러댄다.

"피가로 여기, 피가로 저기,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아이고야, 한 명씩 차례차례로... 제발 부탁이오..."

이 오페라의 대본이 쓰여질 당시인 1770년대 프랑스는 아직 혁명 전이어서 왕과 귀족들이 독식하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피가로처럼 계몽주의 등의 영향을 받은 식자층 시민 계급들이 성장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에서처럼 변화하는 세상을 읽지 못하거나, 애써 거부하면서 과거의 진한 향수만을 고집하던, '마리 앙투아네트'로 대표되던 귀족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프랑스혁명의 물결의 파고 속에서 과거의 잔재물로 취급되며 사라져 갔던 것이다. 이렇듯 세상은 늘 변화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도 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변덕스럽게 튕겨져 가고 있는 것이다.

#3

지난해 초부터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클래식 공연계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오면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리라고 소망하고 또 예견한다. 하지만 필자는 불행하게도 완벽한 복구, 특히 양적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인식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고, 또한 화폐경제의 재편이나 출산율, 기계문명에 더욱 의존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작금의 혼돈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2차대전 이후부터 지난 8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온 클래식계의 고전적 양태로의 회귀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4

이러한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로 인해 공연의 기회,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공연의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 제한된 횟수의 공연은 자연스럽게 질적으로 뛰어난 개인과 단체에게만 허락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국내 상황만 조금 정리해보면 IMF 이전에는 20개의 공연을 20개의 개인이나 단체가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었지만 그 이후에는 10개로 줄어든 공연이 기량이 좀 더 뛰어난 7~8개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돌아갔고,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에는 8개로 줄어든 공연을 4~5개의 단체가 차지하는 방식으로 좀 더 높은 레벨의 개인이나 단체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세상은 흘러왔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클래식 공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지난 20여 년간의 이러한 완만한 변화는 그 가속도가 급속도로 붙어, 1970년대를 점령했던 스웨덴 그룹 ABBA의 노래 〈The Winner takes it all〉의 가사처럼 경쟁력 있는 개인과 단체가 전리품을 완전히 독식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5

지난 1년 반 동안 공연계가 그러한 식으로의 변화를 이미 예고하고 있지 않았는가? 공연장에 직접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비대면, 언택트 공연 등을 통해 각각의 개인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무대에 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프로 스포츠가 방송 영상을 통해 선수들의 플레이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선수 각각의 기량이 객관적으로 평가됨으로써 그 값어치가 매겨지고 그 결과, 프로 스포츠 사업이 지난 5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볼 때, 클래식음악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개인이건 단체건, 제도권 밖이건 안이건 할 것 없이 상품성과 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6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은 우리는 변화해야 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우리 예술인들이 목도하는 매일매일에서 클래식음악과 음악가들의 터전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당하고, 과거의 아름답고도 영화로웠다고 믿어왔던 가치들이 새로운 논리로 무장한 여러 목소리들에 의해 폄훼당하고 평가절하되는 것마저도 안타깝지만 또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로 결코 돌아갈 수 없으리라.

그렇다!

과거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절대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강한 멘탈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 듯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든 공연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뛰어난 개인과 단체들의 연주를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마음먹은 대로 접할 수 있는 관객들은 자기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면 외면해 버리는 냉혹한 공연문화가 이미 도래하였으며 곧 예술계를 잠식할 것이다.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시학(Poetica)에서 말한 연극의 3요소는 무대, 배우, 관객인데, 관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분명히 무대와 특히 배우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누군가 이야기했다. 하지만 관객들이 무지로부터 벗어나 눈을 뜨는 순간, 그동안 거짓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무대와 특히 배우들은 말끔히 자취를 감추고 참과 진실을 연기할 줄 아는 배우들만이 살아남는다고 그 누군가가 이야기해 왔다.

코로나로 인해 참과 거짓이 판가름 지어질 때가 어쩌면 도래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아니라면 적어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_전시문화 이야기

새로운 기술 기반의 시대 상상하는 것이 미래다

글_**남인숙**(미술평론가)

예술의 근본적인 전제를 흔든 코로나

예술에서 '비대면(非對面)'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예술에 관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비대면'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몸과 정신에 침전되는 가치야말로 예술만이 제공하는 고유한 가치라고 주장해 왔는데, 코로나는 이 근본적인 전제를 흔들어 놓았다. 불가피하다고 믿었던 거의 모든 것을 코로나는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연주할 수 없고, 전시할 수 없으며, 공연할 수 없는 많은 예술가들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의 나락에 떨어졌다. 코로나 시대 예술가들은 단테의 탄식 못지않은 깊고 긴 실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예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획 전시가 진행 중인데 중지하라는 종료 명령을 받아 보니 그 현장감이 남달랐다. 비감 속에 빠지게 한 코로나는 우리를 실존의 위기는 물론 말 그대로 비상사태 앞에 내몰아 긴박감, 불안함, 막연함 등의 상흔을 온몸에 남기고 있다. 책에서만 보던 '거대한 전환의 시기'가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전개될 줄이야.

디지털 유비쿼터스의 시대,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또한 실감하게 되는데,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의 시간은 현실적인 좌절도 막대하지만 '다른 방식'을 찾아 길을 닦는 미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거리두기'와 '비대면'은 닫힌 미술관과 박물관을 온라인으로 옮기게 하고 현실에서의 경험과 '같은 질감'의 소통 감각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고민의 절박함은 가상공간(VR, AR)과 같은 비대면 방식의 공간을 찾아 현장감을 대신할 만한 매력을 찾아내고 실험하게 하며, 그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영상 제작은 티저 영상처럼 홍보를 위한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제2, 3의 미술관이자 서고(書庫)'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큐레이터들의 역할이 뚜렷해졌다. 기획물이나 작품에 대하여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을 겨냥한 설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미술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확산시켰다. 이는 무한 되돌림을 통한 학습의 효과도 크다. 또한 미술관을 방문객 수로 측량하던 한계에서 한발 떨어져 미술관 고유의 기능을 환기시킨 점도 코로나 불행이 가져다준 다행한 일이다. 실질적인 방문객 수는 이제 '좋아요' 클릭 수가 그 짐을 지고 있다. 예약을 통해 방문한 관람객이야말로 작품 감상은 물론 미술관 공간 자체에 대한 체험까지 살뜰하게 자신의 경험에 통합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예술적인 만남을 수행하게 된다. 한산한 거리두기식의 소규모 오프라인의 활동은 군소(群小)의 작은 갤러리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져 미술 생태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또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온라인에서 작품은 피상적이거나 과장되어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기기를 쉽게 다룰 수 없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 밀려드는 비대면 온라인 세계에 대해 두려움, 불안함, 불쾌함, 분노 등이 없을 수 없다. 경험의 숭고함을 훼손한다거나 작품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치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등의 불안이 상존한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실제 경험의 섬세함과 풍성함을 대신 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온라인 소통의 장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창작과 감상의 모든 지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을 이끌고 있는 첨단기술, '디지털 기반'의 환경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우리 일상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도처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유비쿼터스'의 시대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소통 방식이 새로운 영토로써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세계를 촉진하고 가속화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온라인 소통은 장점이 있다. 참여의 직접성, 접속의 평등함, 민주적인 정보 취득, 영토에 한정되지 않으며 시간이 자유롭고, 제도의 벽을 넘어서는 쌍방향의 소통 방식, 주체의 욕망과 판타지를 마음껏 실현해 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디지털 감성이라

고 할 만한 용어들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SNS 관련 용어는 이미 확산된지 오래고, '비대면'과 함께 줌(ZOOM), 웨벡스(Webex), 구글, 플랫폼, 최근에는 메타버스까지 기술 기반의 용어들이 다반사로 사용되고 실제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예술이론 과목이나 회의, 학술대회 등은 온라인 기반 참여의 장점이 많다. 자료가 있는 그곳에서 수업을 하게 되니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줄 수가 있고, 작품이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으며, 오가는 시간을 줄이고, 국제적인 참여도 쉬워 신통방통한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검색의 신(神)을 넘어 자료의 신속한 획득은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비대면' 시대의 또 다른 소득이랄까... 온라인 관련 예술 콘텐츠도 그 양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모마(MoMA)가 온라인 예술 콘텐츠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물론 예술 관련 품질 높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IT 강국에서 온라인 기반의 소통은 질적(質的) 상승의 나선 운동에 우리를 동참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2021년 홍콩 아트바젤도 온라인으로 다녀왔다.

그러나 인터랙티브(Interactive)형의 창작이나 참여까지는 수용하더라도 실감형의 디지털 공간이나 몰입형의 경험이 전면화되는 것에는 고개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전 국민의 휴대폰 보유량이 상당함에도 온라인을 포함한 가상공간에서의 소통을 예술의 영역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경험적 가치'가 인격에 통합되면서 성숙해가는 실천적인 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을 이해해 왔기 때문이다. 천지의 기운을 알아차리거나 깊은 통찰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고도한 자질의 골간에는 항상 '경험의 실천적 지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의 대표적인 인문 활동이 바로 예술 활동이었기에, 경험을 벗어난 예술 활동에 대해 무의식적인 저항이 있다. 인류가 한 번도 구사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감염병 재난 또한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지만, 기술(도구)이 지금 시대와 달랐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의 전개 양상은 그야말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온라인 경험을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라거나 새로운 공간의 경험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비대면'을 새로운 경험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소통'을 경험의 확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험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경험을 축소하는 '판타지와 가상'으로 다루어야 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은 과거 경험 중 하나로 상대화되면서 새로운 기술 기반의 미래를 상상해 내야 한다.

디지털 소통, 대면의 확장으로 전개되다

궁금한 화가나 작품이 있으면 검색엔진에 이름을 입력하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무한 반복하여 시청한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역시 온라인을 통해 무한히 반복해 입장할 수 있고 작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작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한 반복의 시청이 가치가 있으려면, 제공되는 동영상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미술관, 박물관의 자료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내용의 측면이나 기술의 측면이나 모두 수준급으로 디지털화되어야 하고, 디지털화된 자료는 어떤 플롯에 의해 동영상으로 제시되어야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하고 기획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된 자료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야만 무한 반복의 시청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미술품을 감상하는데, 동영상 보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멈추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실제 작품을 확인하고, 작가와 대화하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화의 고도화는 예술에 대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주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작가와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옆집 미술관이자 서고로써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위한 전시 기획도 전개될 것이다. 비대면으로 촉진된 디지털 기반의 소통은 대면의 확장으로 전개되면서 상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심화는 작품의 감상에, 작가의 존중에, 유통의 투명에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 동시대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작동하도록 우려보다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예술가와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시급하고도 명료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시청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학습을 넘어 구독경제의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는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화는 작가와 작품 그리고 유통에 대하여 세심하고도 꼼꼼하게 제도적인 보안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미술계의 생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 한다. 덧붙이자면 예술가를 위한 첨단의 기술 공유나 공유 플랫폼 등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미술의 뉴딜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활용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소견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비대면 축제
2021 장미꽃 필(Feel) 무렵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축제의 새로운 장이 열리다

글_**전영롱**(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이곡장미공원 현장에서 느껴본
'장미꽃 필 무렵'

달서구 가족들을 라디오 부스로 초청하여
구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보이는 라디오 '로즈 온 에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축제가 진행됨을 알 수 있도록 태블릿 PC가 삽입된
미술 작품을 제작·설치하여 메인 프로그램과 개최를 축하하는 내빈들의 영상을 재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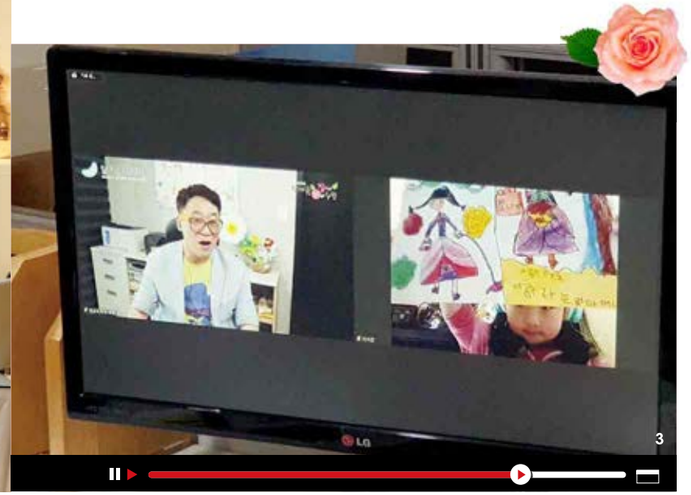
축제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온라인

지난 4월, 반가운 손님이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종합 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발 묶인 한국의 관객들과 예술가들을 위해 LG아트센터로 찾아왔다. 축제가 전면 취소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한국에서는 필름 버전으로 페스티벌을 펼쳤다. '아비뇽 페스티벌 시네마'는 이전 축제에서 공연되었던 화제작 4편과 추천작 1편 등 총 5개 작품을 영상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아비뇽 페스티벌과 나란히 75주년을 맞은 에든버러 페스티벌 주최 측도 축제 계획 당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장고 끝에 올해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대면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최 측은 모든 예술가들이 세계 최고의 무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공식적인 업무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콘텐츠 제작 및 공개, 홍보, 티켓팅, 방역까지 비대면의 요소를 폭넓게 갖추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운집하는 축제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고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무관중 생중계 방식을 시작으로 랜선 프로그램을 통한 공연, 영상 퍼레이드, 체험 프로그램, 미션 프로젝트, 환경 캠페인 등이 시도되었다. 국내 입출국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되 현장감 있는 관람과 참여를 위해 기술을 도입하여 실감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축제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핵심 수단이 된 것이다. '축제 콘텐츠의 온라인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더 빨리 당겨진 것이지 언젠가는 해야 할 고민이었다는 의견에 필자 역시 동의한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변수 가득한 현 상황에서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

2



3

4

비대면 축제의 새로운 길을 여는 달서문화재단

달서문화재단은 매년 5월 '장미꽃 필(Feel) 무렵' 축제를 이곡장미공원에서 개최해오다 지난해 처음 언택트 공연으로 진행하였고 올해 역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발맞춰 '비대면 축제'를 개최했다. 메인 프로그램인 문화예술 공연은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국악, 세미클래식, 현대무용, 마임 장르로 구성하여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달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장미가 만개한 이곡장미공원에서 개최할 수는 없었지만 공원을 영상으로 스케치하여 공연 배경으로 활용함으로써 이곡장미공원에서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전하고 싶었다. 타 지역 관광객에게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더해졌다. 축제 콘텐츠를 영상화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올해의 경우 태블릿 PC가 삽입된 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하여 메인 프로그램과 개최를 축하하는 내빈들의 영상을 재생시켰다. 축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곡장미공원에서도 알리고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축제가 이뤄지다 보니 '먹거리, 즐길 거리'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달서구민이 비대면으로라도 '직접 참여'하는 일상 속 축제를 만들고자 했기에 각자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랜선'을 적용하였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며 배송받은 키트(Kit)로 손 소독제와 반려견용품을 만들어 보는 랜선 클래스를 비롯하여 어린이들이 이곡장미공원 그림을 그리고 줌(ZOOM)에서 만나 작품을 소개하는 드로잉 토크, 주민이 직접 지역 축제의 주제곡을 만들어보는 작곡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마스크 줄 자르기' 환경 캠페인을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하며 캠페인에 함께할 사람을 태그로 지목하는 등 참여자 모집과 홍보 역시 SNS,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미 축제장에 와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부스 프로그램이 아닌 실행 단계 이전에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는 비대면 축제의 경우 사전 모집을 하고 홍보하는 것이 오프라인 축제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신청 모집 기간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반응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축제와 달리 각자 공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본 행사 기간 중에도 조회 수나 SNS 홍보글에 공감하는 정도 외에 참여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후에도 비대면 축제 형식을 고민한다면 실시간으로 참여자와 진행자가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등 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아직도 우리 모두가 낯설고 변수가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달서문화재단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대구의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계획했고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에 공연과 전시회 등이 취소 · 연기되면서 힘든 상황이 지속되던 중 무대에 오르며 힘을 낼 수 있었으며 날씨 좋은 봄날, 공원에서 관객들과 만날 날을 기대한다는 예술가들. '로즈 온 에어'에 참여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다는 달서구 주민들. 그들과 함께한 '2021 비대면 축제, 장미꽃 필(Feel) 무렵'이었기에 달서구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축제를 미리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달서문화재단은 축제를 1년 내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권역별, 계절별로 분산하여 개최하고자 한다. '2021 비대면 축제, 장미꽃 필(Feel) 무렵'에 이어 가을축제는 월광수변공원에서 열릴 '시를 노래하는 달빛 콘서트'로 시작한다. 10월 15~16일에는 달서구 문화예술의 특색을 담은 '희망달서 큰 잔치'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야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여름 자동차극장 형식으로 두류야구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소나기 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희망달서 큰 잔치'의 전야제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진행한다.

1 비대면 축제로 진행된 2021 장미꽃 필 무렵
2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한 달서문화재단
3 온라인 소통으로 더욱 풍요로워진 비대면 축제
4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는 장이 되었다

Theme 2

문화도시를 만드는 작은 움직임
‘달서 문화히어로즈를 찾아서’

32 메세지팩토리 협동조합

34 사회적협동조합 와룡

36 성서공동체FM

38 한국파릇하우스

40 문화예술교육연구회 가온협동조합

42 모두가족 품앗이

44 상화로 도시재생문화기행 주민협의체

46 에코스타트

48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

50 (주)운동명가 조아짐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기획사 ‘달서구 문화히어로즈 운영의 장’

2011년 5월, ‘변화, 청년을 일깨우는 7가지 메시지’라는 주제로 구미에서 강연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소셜메신저(Social Messenger)’는 노경민 대표를 비롯하여 금오공대 대학원생 5명이 주축이 돼 만든 청년 봉사단체로서 공익메시지 생산과 전달을 목표로 두었다. 이듬해 4월 메세지팩토리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4년 1월 달서구 두류동에서 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스토리가 있는 메신저’로 달서구 문화도시 콘텐츠 확장을 위해 활약 중이다.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62 지하 1층

2

3

사회적 가치를 담은 메시지에 M.S.G.를 더하다

메세지팩토리(MESSAGE FACTORY)는 누구나 지닌 메시지를 공유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소셜기획사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가공하여 지역에 전달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마케팅, 서비스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등 M.S.G. 방법론을 활용한다. 2014~2017년 비산7동 안전마을 활동, 청소년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우체통(우리들의 진로 체험 소통공간)’ 등 다양한 공익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상화로 문화기행을 진행했다.

‘만들고 나누고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보루

2020년 10월,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에서 ‘환경’을 주제로 3개월간의 청소년 공익메신저 활동을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공익메신저는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은 만들고, 나누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누구나 이곳을 이용하여 다양한 메시지를 만들고 회의, 스터디, 프로젝트 등의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달서구 두류동 〈:D1862〉에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보루가 있다.

달서구 문화히어로즈는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리더들이 참여한 학습공동체다. 달서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16개 팀이 꾸려져 2021년 4월부터 매주 3시간씩 모임을 이어왔다.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노경민 이사장이 멘토로 나섰다.

달구벌대로 1862에 위치한 5층 신협 건물. 메세지팩토리는 삼익신용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이곳에서 스튜디오(지하 1층), 샐러드 카페(1층), 숨 쉬는 공간(2층), 공유 오피스(3층) 등을 운영한다.

1 2019 상생 이야기(성서노인종합복지관)
2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노경민 이사장
3 ‘달서구 문화히어로즈’ 강연 모습

사회적협동조합 와룡

문화를 만드는 이곡동 마을사랑방

1

'마을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마을학교,
인성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학교,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자라고 세워가는 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와룡의 평생교육공동체는 '가르친다'는 생각보다 '나눔'의 몫이 더 크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옆 사람과 나누는 배움의 새로운 시각.
그렇기에 사회적협동조합 와룡에서는 마을살이가 더 즐겁다.

사회적협동조합 와룡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37남길 13-10

엄마들의 교육 품앗이로 시작한 교육공동체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교육 공동체로

달서구 이곡동의 마을사랑방, 와룡배움터. 이곳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와룡의 모태이다. 와룡배움터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삭막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 거리와 교육을 선물하고픈 작은 바람에서 비롯됐다. 첫걸음은 미비했다.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동네 엄마 10여 명이 모여 십시일반 교육 품앗이로 기반을 다졌다. 집 앞 놀이터가 배움의 공간이었고, 와룡산이 멋진 체험장이었으며, 재능기부에 나선 엄마들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배움터를 보듬고 키운 덕에 2015년 평생교육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일보해 지금의 사회적협동조합 와룡을 일궈냈다.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행복한 문화공간으로 진일보

사회적협동조합 와룡은 지난해 공유공간 지원을 받아 공간 리모델링과 함께 카페 콩닥콩닥을 열었다. 배움터 공간은 영화 상영, 초청 강연, 마을학습 등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간 마련이 어려운 성서 지역 마을공동체들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올해 2월 오픈한 카페 콩닥콩닥은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닌, 와룡마을의 문화공간으로 인기다.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공간을 꾸미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정이 넘쳐나는 달서구 문화도시의 문화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와룡은 현재 4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행정안전부 주민조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이 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1 2월 오픈,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가꾼 카페 콩닥콩닥
2 조은정 이사장(왼쪽 아래)과 조합원들
3 주민들의 문화 휴식처 와룡배움터

2

3

성서공동체FM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동네 방송국

2005년 8월 개국했으니 어느덧 15년 세월이다.
처음엔 성서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이야기로 출발했다.
라디오에 끊임없이 따뜻한 관심을 던지는 이들이 조금씩 생겨났다.
하나둘,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마을'은 좀 더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변해갔다.
마을의 소통이자 공동체, 성서공동체FM은 그렇게 주민과 더불어 나아가고 있다.

.....

성서공동체FM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7 혜성빌딩 4층

지역의 소소한 일상과 소식을 나누다

성서공동체FM은 이주노동자와 성서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은 동네 방송국이다. 라디오 주파수 FM89.1MHz를 맞추면 성서 지역은 물론이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다. 2005년 소출력 FM 방송으로 첫 발을 내디딘 성서공동체FM. 초창기 컨셉이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역의 소소한 일상과 소식을 나누는 소통 창구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특별 재난방송을 진행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재난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 역시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덕분에 재난유공으로 방송통신위원장상과 마을공동체 어워드 최우수 대구시장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마을공유스튜디오에서 누구나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다

성서공동체FM은 올해 큰 변화를 이뤄냈다. 개국 이래 15년 간 성서공단 입구에 위치해 있던 사옥을 이전하고 마을공유스튜디오를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에 마을공동체 모임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방송국 또한 마을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고 일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로 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마을공유스튜디오를 통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체험 활동을 늘려갈 계획이다. 주민들이 모여 미디어를 만들고 즐기며 소통하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성서공동체FM이 늘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성서공동체FM 마을공유스튜디오는 지난 3월 개소했으며, 라디오 생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 라이브도 다채롭게 구현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마을공동체라면 누구나 영상 프로그램을 기획해 스튜디오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1 마을 속으로 새롭게 이전한 성서공동체FM 스튜디오
2 마을공유스튜디오
3 성서공동체FM 제작팀

한국파릇하우스

서로의 다름으로 하나의 아름다움을 찾다

‘다므기’. 부사어다. ‘더불어. 함께’를 뜻하는 옛말이다. 2020년 11월, 달서구 옷는얼굴아트센터에서 다름으로 같음을 찾아가는 다므기 접촉 뮤지컬 〈신(新) 맹진사댁 경사날〉 공연이 펼쳐졌다. 서로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는 가족과 비장애인으로만 구성된 달서구의 일곱 가족이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다. 연출을 맡은 이미경 한국파릇하우스 대표는 2017~2018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에서 〈달 너를 품으며〉 〈어머니의 하루3〉을 잇따라 세상에 선보였다. 한국파릇하우스는 2020년부터 ‘다름이음’이라는 브랜드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파릇하우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23길 49

1 한국파릇하우스 ‘다름이음’ 가족 (오른쪽 끝 이미경 대표)
2 한국파릇하우스
3 한국파릇하우스에서 펴낸 《우리는 모두 춤출 수 있어요!》

공존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석·박사 출신의 전문 교수진

음악, 미술, 무용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에이블아트(Albe Art)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포용을 위한 공존커뮤니티아트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파릇하우스 로고는 ‘움직임·한국 전통문화·가족·생명·기독교의 사랑’을 형상화했다.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서로 공감하고 포용하는 문화예술 기업을 지향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공존이 목표다. 국악교육 전공의 교육학 석사, 오르간 전공의 음악학 석사 등 전문 교수진이 탄탄하다. 2009년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한국파릇하우스를 개소했고, 2019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다. 2020년 10월, ‘2020 대구장애인문화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극장·갤러리 복합공간인 ‘달서구 다-온 극장(가칭)’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공존하는 창작 무대와 일자리 계획

2020년 5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달서구에는 2만 8천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한다. 한국파릇하우스는 장애·비장애 또래 친구들이 ‘다름으로 함께’ 무용극을 하고, 필름제작발표회를 준비하며, 책갈피·머그컵 등 굿즈(Goods)를 만든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장애인 예술가들을 교육하고 양성해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달서구 다-온 극장(가칭)’과 같은 창작 무대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달서구 문화도시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가슴 한쪽을 서걱대는 뭉클한 간지럼이 햇살을 타고 오른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 6. 9. 제정. 약칭 :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연구회 가온협동조합

교육발명마술의 신기원을 열다

1

2

3

무대 위 커튼 뒤로 밀려난 검정 케이스. 깍지를 낀 왼손에 또르륵 꽃이 핀다.
교육학 석사 강혜원 이사장(문화예술교육연구회 가온협동조합)은 교육발명마술의 신기원을 연 인물이다.
출산 한 달 만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평생교육 마을리더 과정을 듣고, 마술을 익혔다.
'해리포터 발명 마술학교'는 출렁거리는 구름을 뭉텅뭉텅 잘라내는 마술 가위다.
동심의 거울이 수십 개 손을 뻗어 하늘을 향해 앞다퉈 솟구쳐 오른다.

문화예술교육연구회 가온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80 장미아파트상가 412동 2층

전국 최초의 발명마술지도사 양성과정 개설

2015년 2월, 교육발명마술연구원을 열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국 최초의 발명마술지도사 양성과정이었다. 발명의 원리를 적용하여 마술 도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찾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평생교육활성화사업 중 학습형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됐다. 그 이후 창의융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동화 마술, 어린이·청소년 체험 마술, 동화 마술 교구놀이 프로그램 등 컬래버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지난 7년간 달서구 관내 희망학습마을 공동체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컨설팅을 이어오며 지역의 공동체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행복한 마술 놀이터 '해리포터 발명마술학교'
전국의 마술 콘텐츠 모아 해리포터 마술축제 꿈꿔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을 배우죠. 홀로 그네를 타며 독립성을, 구름을 타며 용기를, 소꿉놀이를 하며 나눔을 배웁니다." 문화예술교육연구회 가온협동조합은 2021년, '해리포터 발명마술학교'를 열었다. 아이들은 이곳 마술 놀이터에서 울긋불긋한 상상에 꿈을 입힌다. 문화예술교육연구회 가온협동조합은 앞으로 전국의 마술 콘텐츠를 모아 해리포터 마술축제를 열 계획이다. 강혜원 이사장은 베스트셀러 《시크릿》 중 '유인력의 법칙(Law of Attraction)'을 믿는다. 미래의 꿈을 위해 집중하고 에너지를 부여하는 신비한 주문. 달서구 문화도시의 현장, 그의 마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달서구 자원봉사전문가 과정은 달서구청과 달서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온 프로그램이다. 풍선, 페이스페인팅, 마술 등을 배워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하는 재주꾼을 양성한다. 교육발명마술연구원은 동화마술지도사/자원봉사 마술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해 왔다.

4

1 문화예술교육연구회 가온협동조합 강혜원 이사장
2 해리포터 발명마술학교(2021년)
3 책 《어쩌다 마술》. 교육발명마술연구원 강혜원 이사장 등 우연히 마술을 만나 자신감과 행복을 찾은 7명의 프로들이 인생 수업을 펼친다. 2020. 6. 발매. 북랩.
4 협성고등학교에서 강의 중인 모습

모두가족품앗이

부모와 이웃이 함께 품는 행복한 공동체 육아

1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만큼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가정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두려움 없이, 한 아이의 성장을 돕는 일에 온 마을이 나서는 것,
모두가족품앗이가 그 기적을 만들고 있다.

모두가족품앗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5 2층 아이나래

육아에 대한 공동 관심사로 동아리 결성
재능 나눔, 자녀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모두가족품앗이는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하 달서구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며 공동육아품앗이를 하는 엄마들의 동아리다. 현재 달서구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공동육아품앗이는 총 11팀, 39가족으로 팀 성격과 구성원은 다르지만 오랜 시간 같은 공간을 이용하며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의지했던 터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모두가족품앗이'는 달서구공동육아나눔터의 다양한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며 같은 지역 엄마들끼리 무엇인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018년 결성됐다. 달서구 내 영유아기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이 모여 가족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품앗이 그룹을 형성했으며 재능 나눔, 자녀 돌봄, 육아 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소통, 활발한 지역문화 활동 전개

모두가족품앗이는 매년 달서구동아리지원사업에 지원해 엄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2021 영어그림책)사업'과 '나눔(봉사활동 월 평균 1~2회)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내 아이와 가족, 이웃,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긍정의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달서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로 떠나는 대구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구시민대화모임 '다색다감한 사람들과의 문화가 있는 세끼 삼시색끼'에 '#어른, 그림책' 대화모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삼시색끼 종료 후에도 대화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모두가족품앗이 동아리는 전통적인 품앗이 문화를 접목하여 이웃간 공동육아를 통한 건강한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고 있는 5개 품앗이(도담도담 9년차, 벚나무학교 9년차, 나무그늘 6년차, 레인보우 5년차, 대박 3년차)에서 10명의 엄마들이 모두가족품앗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3

1, 2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족품앗이 회원들
3 달서구공동육아나눔터 아이나래에서 함께 놀이 중인 아이들

상화로 도시재생문화기행 주민협의체

상화로에서 숨은 보물찾기

1

상화로는 월곡네거리에서 유천네거리까지 이르는 3.9km의 복개도로다.
일제강점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한 저항시인 이상화를 추념(追念)하여 이름을 붙였다.
2020년, 상화로 도시재생문화기행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새로이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모아 상화로 견문록을 펴냈다.
상화로의 오늘을 보고, 옛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기록했다. 그간 '상화로에서 숨은 보물찾기'(2019년),
'상화로 탐사대_잊혀진 진천천을 찾아서'(2020년) 등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유적에 시간의 숨결을 새겼다.

상화로 도시재생문화기행 주민협의체
대구광역시 달서구 명천로 43 상화기념관 · 이장가문화관 5층

2

3

상화로에서 숨은 보물찾기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90일 간 총 12회에 걸쳐 상화로 인접 4개 동네를 다니며 조사한 이야기를 담아 지도로 제작했다.

1 상화로 도시재생문화기행 주민협의체 권준모(왼쪽), 오명조(오른쪽) 활동가
2 2020년 진천천 답사
3 2019년 상화로 문화축제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의 추진축

상화로 도시재생 문화기행 주민협의체(이하 상화로 주민협의체)는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9년 3월 발족한 주민단체이다. 2020년 12월 기준 40여 명의 회원이 이야기조사팀, 교육홍보팀, 문화행사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 10회에 걸쳐 주민역사리더 과정을 진행했고, 상화로 이야기조사 활동, 선진지 탐방에 이어 그해 11월에 상화기념관 · 이장가문화관 일원에서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상화로 문화축제를 열었다. 2020년 12월, 상화로 주민협의체 활동집인 《언제나 꽃처럼 상화로 사람들》을 펴냈다.

상화로 탐사대_잊허진 진천천을 찾아서 여기, 상화로를 남기고 기록하다.

1998년 상화로가 생기기 전, 마을과 마을을 잇는 생명의 젖줄이었던 진천천. 8차선 도로 아래 물길이 흐른다. 상화로 주민협의체는 2020년 여름, 진천천 복개구간 3.9km를 걷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생태와 문화, 역사를 엮어 다듬는 달서구 문화도시의 현장. "상화로 지하공간을 시민의 쉼터로 살리고,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상화로의 오늘을 살펴보니, 내일을 그리는 이들의 꿈이 나날이 펼쳐진다.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은 달서구가 지역의 역사 · 문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이상화 거리와 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상화로 환경을 개선하며,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에코스타트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솔루션

1

에코스타트(ECO START). '환경과 건강을 위한 친환경 생활의 시작을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뜻을 담았다. 2016년 '원스톱 웰빙 친환경 아기용품 세탁서비스'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에 선정되었다. 천연세제, 업사이클링 용품 만들기 등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건강과 미래의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전파하고 있다.

에코스타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88 1층

2

3

아이 키우는 엄마 셋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도전

2016년 2월, 아이 키우는 엄마 3명이 '원스톱 웰빙 친환경 아기용품 세탁서비스'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에 도전해 선정되었다. 그 해, 유아 전용세제를 자체 제작해 대구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되었다. 2018년에는 대구행복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복나눔연대상,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상호거래상을 연이어 수상했고,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우수 창업팀에 선정됐다. 그간 대구베이비페어 박람회, 홈리빙생활용품박람회를 비롯하여 '지구의 날' 행사와 사회적경제박람회 소셜스타상품 부스에 참여하며 에코스타트의 히스토리(History)를 차곡차곡 쌓아 왔다.

솜씨 있는 그녀들의 ART길
버려지는 자원에 의미와 디자인을 입히다

에코스타트는 폐원단과 폐가죽, 폐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사이클 생활용품을 만든다. 버려지는 자원에 의미와 디자인을 입혀 특색을 살린 가치 소비를 이끌며,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대상별·맞춤별 눈높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솔루션!' 달서구 문화도시엔 솜씨 있는 그녀들이 한 올 한 올 엮는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미래의 꿈이 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대구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모델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판로 개척 지원 등을 펼치는 국·시비 공모사업이다.

1 업사이클 교육 및 제품 만들기
2 에코스타트는 폐원단과 폐가죽, 폐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사이클 생활용품을 만든다.
3 에코스타트 김은주 대표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 던진 여고생들의 신박한 도전

1

사회적 경제의 꽃이 교정에 활짝 피었다.
소쿱놀이하던 여고생들의 당찬 도전으로 시작된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
시작은 미미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학생들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어 창의적 경제 활동의 나래를 펴며 찬란의 꽃을 피웠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것이 모두가 꿈꾸는 미래교육이다.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94길 48 효성여자고등학교 1층 더 플랫폼

2

3

대구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첫 삽을 뜬 학교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여고생들의 재기발랄한 도전이 시작됐다. 2019년 1월, 대구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서는 처음으로 학교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효성여고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교사와 학생,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효성소쿱놀이는 2019년 29명의 조합원으로 발족해 현재 조합원 수만 300여 명(2021. 6. 기준)에 이른다. 학교협동조합이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2015년, 비교과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과 '협동'을 스스로 몸에 익힌 학생들은 2018년 '효성소쿱(少+Coop)놀이'라는 이름으로 모의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헌옷 업사이클링으로 에코백을 제작·판매했는가 하면 효성소쿱놀이 한마당을 통해 생산에서 판매,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기본기도 탄탄히 익혔다. 이러한 활동들이 밑거름이 되어 마침내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됐고, 배움의 장이 지역사회와 만나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

협동조합에 관심갖기, 참여하기, 스스로 전파자되기의 단계로 성장

효성소쿱놀이의 주요 사업은 학생건강증진사업(카페를 통한 건강한 먹을 거리와 휴식공간 제공)과 학생교육지원사업(학교 속 작은 학교 지원 및 투자), 학생복지사업(효성소쿱놀이 브랜드 개발과 매점 운영을 통한 생필품 공급) 등 세 가지다.
매년 5월에는 정기총회를 열어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가치까지 더하는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구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관심갖기, 참여하기, 스스로 전파자되기의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성소쿱놀이는 앎과 삶이 공존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교육과정 수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만들어 후배들 대물림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1 학교협동조합 토크콘서트
2 효성소쿱놀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날 행사
3 효성소쿱놀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1951

(주)운동명가 조아짐

지역과 계층을 넘어 운동의 경계를 물다

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는 모두가 건강 취약계층이죠."
(주)운동명가 조아짐을 이끄는 이윤필 대표.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오피스 프로그램도
능숙하게 다루며, 온라인 피트니스 강의 서비스인 '조아짐ON'을 런칭하는 등 스타트업(Start-up)의
새로운 장르를 열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운동을 처방하고,
운동기구와 콘텐츠를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종합 멀티 피트니스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주)운동명가 조아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 상인프라자 8층

2021년 3월, 사회적기업 인증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타트업

(주)운동명가 조아짐은 달서구 상인동에서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점핑, 줌바, 발레핏 등 다양한 종목을 다루는 150평 규모의 여성 전용 피트니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9년 4월 대구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 등록을 거쳐 2021년 3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플라잉요가 · 필라테스 · 점핑피트니스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단순 자격증 발급을 넘어 스포테인먼트 양성 및 창업 지원까지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타트업 운동명가를 지향하며, 온라인 플랫폼 등 피트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조아짐ON'
운동공간의 경계를 허물다

'오땀5행(오늘의 땀을 5분의 행복으로!)' 2019년, 조아짐은 언어발달 장애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료 운동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그간 '청년과 달서의 상상(上上)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도 참여했다. 2021년 6월에는 온라인 피트니스 강의 플랫폼인 '조아짐ON'을 런칭함으로써 계층과 운동공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피트니스 콘텐츠 개발과 함께 달서구 문화도시의 피트니스 거점으로 온라인 홈 피트니스 대회 등도 기획 중이다. 점핑 점핑! 원통형의 근육 사이로 미끄러지는 호흡이 훅훅 바람을 물고 당긴다.

(주)운동명가 조아짐은 2021년 4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운동센터 고객 상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할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했다.
달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과 달서의 상상(上上) 프로젝트'와 '달서청년 착한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역정착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취 ·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

3

1 점핑(Jumping) 피트니스 수업장면
2 (주)운동명가 조아짐 이윤필 대표
3 필라테스룸

문화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한 제1차 생각나눔 포럼

달서구의 문화도시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 달서문화재단은 지난 4월 23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에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제1차 생각나눔포럼을 개최했다. 생각나눔포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리더 등이 참여했으며, '문화도시 정책의 가치와 비전'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주민, 행정, 지원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영현 전 지역문화진흥원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문화도시 정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신동호 코뮤니타스 대표가 '성주와 칠곡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문화도시 이슈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또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강수 꿈꾸는씨어터 대표, 이창원 인디053 대표, 조은정 사회적협동조합 와룡 이사장 등이 함께한 토론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문화도시 정책을 흡수해 예비 문화도시로의 선정을 준비해야 할지 논의했다. 이번에 열린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달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기조강연

문화도시 정책의 가치와 비전

김영현 전 지역문화진흥원장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들은 공통된 변화를 보인다.
첫 번째 변화는 행정 변화이다. 몇몇 도시들은 문화도시국을 만들거나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협력하는 구조가 등장하며 도시 전체의 전략과 방향들이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문화예술 생태계의 경우 제한적 또는 권력적 구조로만 해석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으로 이전보다는 개방적인,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들 스스로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모색하는 주체가 된다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게 된다.
세 번째는 도시 전략의 솔루션으로 문화를 등장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화를 비전이나 전략으로 활용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문화를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가치를 증폭시켜 내는 것이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화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독립된 각 개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가며 거버넌스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직접 겪고, 부딪히면서 도시는 '문화'를 주요 정책 혹은 전략으로 이해하고 활용한다.
문화도시의 지정 여부를 떠나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는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문화도시인 것이다.

발제

성주와 칠곡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문화도시 이슈와 거버넌스

신동호 코뮤니타스 대표

문화도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어떤 문화가 있는 곳이 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계속하는 과정이다.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인근의 성주와 칠곡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주_ 사드가 들어오면서 문화적 동행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드라는 강력한 이슈로 뭉친 주민 300여 명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동체를 조직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사드하는 것들'과 '사드하는 것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것 또한 문화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첫 번째, 고된 삶을 문화적 전환을 통해서 바꾸기 위해 하우스 온도는 낮추고, 문화 온도는 올리자. 두 번째,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유지로 만들자.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성주가 좋게 기억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보자. 이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별별 학교, 별별 공간, 별별 실험이라는 세 가지 사업으로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칠곡_ 인문학 도시로 칠곡군은 인문학적 경험을 많이 하며, 공유지와 인적 자산이 많이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인문학 마을에서 문화도시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고, 시민 당사자 추진단과 센터와 행정이 수시로 논의해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칠곡군 문화도시의 슬로건은 '리더보다 바보 같은 이웃'. 문화도시는 시민이 서로 곁을 주고, 돌봐주고, 함께 말을 트는 바보 같은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달서구는 예비 문화도시를 위해서 우선 어떤 역사문화적인, 인구학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있는지, 또 이것이 행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라운드 테이블이 기존 활동가 중심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민 주체가 나와서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이야기들을 담는 과정까지 거친다면 달서구는 내실있는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제1차 생각나눔포럼에 참여한 토론 패널의 이야기

조은정
사회적협동조합 와룡 이사장

문화도시가 자생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힘이 되기를

문화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무엇이며, 우리 지역과 나에게 어떤 문화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달서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성서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것이지 않을까 한다. 성서산단은 달서구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성서산단을 우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삶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사람과 문화가 생활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이 작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취지와도 일치할 것이다.

김강수
꿈꾸는씨어터 대표

변화를 위한 소통, 문화도시의 기본이다

문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주민 간 소통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만들어 소통과 정보 공유에 대한 창구를 시민에게 제공하면 어떨까 한다. 개인 SNS에 습관적으로 글을 쓰고, 공유하는 것처럼 지역민이 서로 이웃의 의견을 알아가고, 공감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달서구만의 풍습이 만들어져야 구민들이 문화도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창원
인디053 대표

시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 번도 문화도시에 살아본 적이 없다' '오죽했으면 법까지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 전제로 시작한다면 모든 도시가 나름의 해법이 있을 것이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온다. 질문에 대한 것을 달서구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선 행정적 평가를 위한 어려운 질문 방식을 시민의 형태로 바꾸는 것부터 하면 좋겠다. 포틀랜드나 전주의 경우 그 도시를 평가하는 지표를 시민들이 토론하고 소통을 해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은 조사하고 연구하는 부분에서도 참여했다. 달서구의 역량 평가나 비전을 위해서 이 경우를 응용한다면 달서구만의 문화도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도시는 시민 상상력의 산물이다.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떤 터전을 만들어 낼 것인가. 삶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Review & Preview

문화예술이 만개하는
행복 문화발전소, 달서문화재단

달서문화재단 출범 7주년 기념공연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한 '시민행복 나눔콘서트'

행복 문화발전소
달서문화재단 출범 7주년
사람과 희망을 노래하다

글_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1

2021년, 달서문화재단이 출범 7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4월 23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7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구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 표창, 그간 발자취를 정리한 영상물 상영, 달서문화재단 후원회의 후원금 전달 및 달서문화재단 임직원의 달서인재육성재단 기부 등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달서문화재단은 2014년 문화예술 기반 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과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같은 해 웃는얼굴아트센터를 수탁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한 여정에 돌입했다. 2016년 생활문화센터 개관, 2018년 달서가족문화센터 개관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문화 활성화 및 가족 가치에 중점을 둔 미래형 문화일등도시 달서로의 기반을 구축해 온 달서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달서구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도전 중이다. 지난 11월 달서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를 구성한 후, 시민공모사업, 라운드 테이블 운영, 문화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며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조성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고 있다.

2021년 7주년을 맞이한 현재, 전국 제3대 거대 자치구이자 60만 구민의 대표 복합문화 예술기관으로 성장했다. '문화로 행복한 라온달서! 예술로 빛나는 대구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문화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들고, 달서만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내며, 예술가들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도시, 달서! 지역 문화 중심지로 활약한 달서문화재단이 있기에 문화예술이 넘실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7년의 성과를 바탕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한 명품 문화예술의 본거지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

3

4

1 달서문화재단 출범 7주년 기념식
2 기념식 축하 공연
3 달서문화재단 이태훈 이사장 인사말씀
4 상품권 추첨 이벤트

바흐의 선율로 가득 채워진 시간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리사이틀

세계를 사로잡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단독 리사이틀이 지난 5월 26일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렸다. DSAC(Dalseo Smiling Arts Center) 2021 시그니처 첫 번째 공연이었던 클라라 주미 강 리사이틀에서는 바흐의 걸작,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약 170분의 긴 시간 동안 클라라 주미 강은 베토벤, 브람스부터 라벨, 스트라빈스키까지 다양한 색을 품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쉼 없이 공연을 이어갔다. 바흐가 갖고 있는 음악적 순수성이 클라라 주미 강의 강점인 밀도 높은 표현력과 만나 한 편의 대서사시처럼 다가온 공연이었다.

‘바이올린 온 스테이지’ 김봄소리 바이올린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소프라노 박혜상에 이어 한국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최초로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김봄소리가 DSAC 2021 시그니처 두 번째 공연의 주인공으로 웃는얼굴아트센터를 찾았다. 이번 공연은 김봄소리가 도이치 그라모폰과 함께하는 첫 솔로 음반 〈Violin on Stage〉 발매와 동시에 진행되는 동명의 리사이틀로 김봄소리만의 뚜렷하고 확고한 음악적 중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오랜 시간 리사이틀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콥스키가 함께해 더욱 풍성해진 무대를 만들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시마놉스키, 생상스, 비에냐프스키 등 유려한 정서는 김봄소리만의 울림으로 재탄생되어 봄의 화사함을 배가시켰다.

달서가족문화센터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 유튜브 크리에이터 ‘달서가족BJ : 달서팸’ 발대식

지난 6월 5일,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가족 유튜브 크리에이터 ‘달서가족BJ : 달서팸’ 발대식이 열렸다. 달서팸은 비대면 환경에 대응한 온라인 활용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하여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시도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함에 따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유대 관계 증진을 돕고자 한다.

지난 5월 한 달간 대상자를 모집해 최종적으로 다섯 가족이 선발됐다. 6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은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영상 제작 및 편집 교육을 받고, 12월까지 달서가족 유튜버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월별로 센터에서 제시한 주제를 바탕으로 팀별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후 완성된 영상을 제출하면 달서가족문화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무료로 제공된 촬영 키트를 활용해 열혈 BJ로 활동할 달서팸의 활약이 기대된다.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들의 행복한 내일(Job)을 위한 동행 취업지원 동아리 ‘레더고(Ready+Leather+Go)’로 Restart!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역량개발 지원을 통한 취업의욕을 고취하고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사후관리 지원 동아리 지원사업 ‘레더고(Ready＋Leather＋Go)’가 첫 시작을 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교 대구캠퍼스와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캠퍼스 내 ‘인터넷 창업 기반 가죽공예 및 POP글씨’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였다. 이번 사업은 가죽공예를 활용한 교육 및 교재를 통해 창업과 방과 후 수업에 연계해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가죽공예 심화교육 뿐만 아니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어린이집,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돌봄 프로그램 진행 및 물품 제작·나눔 등 재능기부 활동을 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레더고’ 동아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에서 여성 창업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Performance

달서생활문화센터 〈Round, Round〉

생활문화를 매개로 함께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의 참가비, 재료비 없이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과 장기점에서 주 1회씩 진행하며 완성작은 온 · 오프라인 성과 공유회를 통해 지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방방곡곡 어울림 인형극〉	〈자연으로 빚는 모빌〉
프로그램	안 쓰는 물건을 활용해 인형극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	폐유리병과 점토로 직접 만드는 도자기 모빌
운영기간	8. 26.(목)~10. 7.(목)	8. 27.(금)~10. 19.(화)
장소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
참가비	무료	무료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시(詩)를 노래하는 달빛 콘서트〉

뮤지컬 형식을 빌려 이상화 등 민족시인의 작품들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콘서트가 열린다. 달서구민 누구나 선선한 밤공기와 시, 라이브 음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월광수변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10. 8.(금) 19:00(예정)
- **입장료** 무료
- **문의** 문화정책실(053-584-9715)

〈희망달서 큰 잔치〉

달서구만이 가진 문화 특색을 담아낸 대표 축제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구민들에게 활기찬 생활문화 향유의 장을 펼친다. 〈2021 소나기 콘서트〉로 전야제를 열고 생활예술 페스티벌, 희망 드론 라이트 쇼 등을 구성하여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선도해나갈 수 있는 달서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일시** 10. 14.(목)~10. 16.(토)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일원
- **문의** 문화정책실(053-584-9712)

앙상블MSG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

방방곡곡 문화공감 영남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The Big Concert'

40명의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영남국악관현악단과 장사익 등 인지도 높은 예인과의 협연으로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전통음악의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는 국악 콘서트다.

- **일시** 9. 11.(토) 19:0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3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Ⅷ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의 '오페레타 박쥐'

현대 신분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풍자를 통해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음악극이다.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은 성악가가 가진 다채로운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 **일시** 9. 29.(수) 19:3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1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Ⅶ 앙상블MSG의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독일 여행'

9월의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으로 '재미없는 독일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자 다양한 장르의 독일 음악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선보인다.

- **일시** 9. 29.(수) 19:3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1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아트 페스티벌Ⅱ '피아노 위크'

피아니스트 이미연이 예술감독을 맡은 전문 피아노 음악 축제. 현재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피아니스트들이 들려주는 주요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표곡들을 음미할 수 있다.

- **일시** 10. 6.(수)~10. 8.(금) 19:3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1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라파우 블레하츠 리사이틀

재즈 인 대구

DSAC 2021 시그니처Ⅲ '라파우 블레하츠 리사이틀'

2005년, 세계 3대 콩쿠르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과 함께 사상 최초로 4개의 특별상을 휩쓸며 세계에 이름을 알린 라파우 블레하츠가 연주하는 쇼팽 스페셜리스트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 **일시** 10. 16.(토) 19:0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7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아트 페스티벌Ⅲ '재즈 인 대구'

올해 6회째를 맞이해 지역 대표 국제 재즈 축제로 자리매김한 '재즈 인 대구'. 해외 유명 재즈 뮤지션과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하는 피크닉 페스티벌이다.

■ **일시** 10. 23.(토)~10. 24.(일)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및 야외 공연장
■ **티켓** 1일권 1만 원, 2일권 1만 5천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달서청년연극제

DSAC 2021 아트 페스티벌Ⅳ '달서청년연극제'

청년 연극인들을 위한 창작 연극 무대인 '달서청년연극제'. 지역 연극계의 미래가 될 젊은 연극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침체된 순수 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일시** 10. 30.(토)~11. 7.(일)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 **티켓** 1만 원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Ⅸ '2021 가곡열전'

2019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가곡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전문 한국 가곡 음악회.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상급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의 향연이 펼쳐진다.

■ **일시** 11. 12.(금) 19:3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2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Ⅹ '지금까지 빅타이거그룹이었습니다'

실력파 멤버 4인으로 구성된 퓨전재즈팀인 빅타이거그룹. 한국 재즈씬의 큰 주목을 받는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공연으로, 퓨전재즈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 **일시** 11. 24.(수) 19:3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1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빅타이거그룹

달서현대춤페스티벌

창작뮤지컬 월곡

유키 구라모토 콰르텟

DSAC 2021 아트 페스티벌 Ⅴ
‘달서현대춤페스티벌’

‘NOW HERE – 지금 여기!!! 우리는 춤춘다’라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춤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달서구민과 대구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한다.

■ **일시** 12. 1.(수) 19:3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미정(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프로덕션Ⅱ ‘창작뮤지컬 월곡’

임진왜란 당시 현재 달서구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이자 월곡역사공원의 주인공인 월곡 우배선 장군의 이야기로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다.

■ **일시** 12. 9.(목)~12.12.(일)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미정(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시그니처Ⅳ ‘유키 구라모토 콰르텟’

로맨틱 피아노의 독보적인 영역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감성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투명한 피아니즘과 콰르텟 편곡 버전으로 연주되는 그의 오리지널 피아노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

■ **일시** 12. 17.(금) 19:3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7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DSAC 2021 시즌 콘서트Ⅱ ‘송년음악회’

지역 최고의 관악 오케스트라인 코리아윈드필하모니의 웅장한 관악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송년 음악회다.

■ **일시** 12. 24.(금) 19:30
■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2만 원(사전예약) ■ **문의** 053-584-8719

달서가족문화센터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을학기 가족공연 ‘렉처 오페라 시리즈’

평소 접하기 힘든 장르인 오페라를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해설을 더한 렉처 형식으로 내용 이해를 돕고자 한다.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9월), 푸치니 ‘토스카’(10월),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11월)를 선보임으로써 작곡가별로 대표 작품을 만나게 된다.

■ **입장료** 5천 원
■ **문의** 운영지원팀(053-632-3800~2)

Ⅰ.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 **일시** 9. 15.(수) 19:30
■ **장소**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출연** 오띠모오페라단, 소프라노 배혜리(비올레타), 테너 신현욱(알프레도), 바리톤 손재명(제르몽), 피아노 조현

Ⅱ. 푸치니「토스카」

■ **일시** 10. 20.(수) 19:30
■ **장소**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출연** 오페라연구회 굿보이스, 소프라노 이정아(토스카), 테너 최요섭(카바라도시), 바리톤 박정환(스카르피아), 피아노 남자은

Ⅲ. 로시니「세빌리아의 이발사」

■ **일시** 11. 17.(수) 19:30
■ **장소**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출연** 대경오페라단, 소프라노 이경진(로지나), 테너 석정엽(알마비바), 바리톤 제상철(피가로), 피아노 김정아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을학기 가족특강 ‘생활 속 관심, 우리 아이들’

가족 구성원 중 아동인 자녀는 미래 세대를 이어나갈 주요 구성원으로 초저출산 시대인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존재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아동학대와 아동 성폭력의 현실을 알고 예방법에 대하여 들어본다.

■ **입장료** 5천 원
■ **문의** 운영지원팀(053-632-3800~2)

Ⅰ. 아이들의 문제, 관심의 부재

■ **일시** 9. 30.(목) 10:30
■ **장소**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주제** 아동학대의 현실 및 대처법 : 응급실 사례를 중심으로
■ **출연** 남궁인(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Ⅱ. 아이들의 문제, 역할의 부재

■ **일시** 10. 28.(목) 10:30
■ **장소**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주제** 아동학대의 원인 및 실태 : 가해자 심리분석 중심으로
■ **출연** 박지선(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Ⅲ. 아이들의 문제, 지지의 부재

■ **일시** 11. 25.(목) 10:30
■ **장소**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 **주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 아동심리분석 중심으로
■ **출연** 정운선(칠곡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1 대구 여성 행복 일자리 박람회 운영

- **일시** 9. 3.(금)~9. 4.(토) 10:00~17:00
- **대상** 지역 내 취업 희망 여성 및 채용 기업 누구나
- **장소** 대구EXCO 동관 5홀
- **주제** 나를 찾다, 일을 잡(Job)! 여성이 행복한 대구!
- **내용** 취업 상담, 현장 면접,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사업홍보, 부대행사 운영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굿잡(Good Job)버스&카페' 운영

- **일시** 9. 27.(월), 11. 1.(월) 11:00~17:00
- **대상** 지역 내 취업 희망 여성 누구나
- **장소** 월성근린공원 외 1개소(변동 가능)
- **내용** 맞춤형 취업 상담, 현장 면접, 이력서클리닉, 노무·심리 상담, 취업 응원 이벤트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업체 탐방' 운영

- **일시** 8~9월 1~2회 예정
- **대상**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 여성 30명 정도
- **장소** 지역 내 여성구인 기업체 2개소
- **내용** 기업 및 주요 업무 소개, 라운딩, 실무진 면담 및 질의응답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 운영

- **일시** 7~12월
- **대상** 지역 내 여성구인 기업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협약기업)
- **내용** 법정 의무교육, 종사자 의사소통, 힐링 교육 등 지원

취업·직장적응 지원 '구직·취업자 동아리&간담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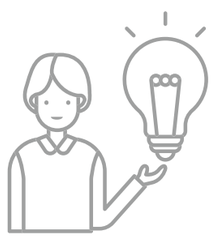
- **일시** 7~11월 중
- **대상**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 등록 및 취·창업자 대상
- **내용** 취업 역량 개발을 위한 동아리 지원, 취업 축하Day(1회), 간담회(1회) 등을 통한 구직·취업 활동 응원, 고용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고용유지 격려 기회 마련

근무환경 개선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 운영

- **일시** 6~12월 중
- **대상**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 채용(예정) 및 창업 기업, 일촌협약 기업 등
- **내용** 기업 시설 환경 개선 및 창업 기업 초기 물품 구입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친화 근무환경 조성 지원

'토닥토닥 마음처방, 건강한 일터 만들기' 운영

- **일시** 6~11월
- **대상** 달서구 지역 내 취약계층 근로자
- **내용** 취약계층 근로자 맞춤형 취업 상담, 근로자 심리치유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미술치료 등 힐링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문특강

오페라 감정수업 '감정적 오페라 읽기'

- **일시** 9. 10.(금)~10. 1.(금) 매주 금요일 14:00
- **강사** 곽보라(소프라노)
- **수강료** 3만 원(4회)

비하인드 스토리로 알아보는 '음악가의 작품 세계'

- **일시** 9. 14.(화)~10. 12.(화) 월 2회 화요일 10:00
- **강사** 최훈락(피아니스트)
- **수강료** 3만 원(4회)

미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 '꽃의 도시, 피렌체'

- **일시** 10. 14.(목)~11. 25.(목) 격주 목요일 10:00
- **강사** 서희주(예술인문공동체 아르케 디렉터)
- **수강료** 3만 원(4회)

현대무용이 처음인 당신에게 필요한 '현대무용 감상설명서'

- **일시** 10. 18.(월)~11. 29.(월) 격주 월요일 14:00
- **강사** 권효원(권효원&CREATORS 대표)
- **수강료** 3만 원(4회)

취미특강

매듭공예 '마크라메 쁘띠 월행잉'

- **일시** 9. 18.(토) 14:00
- **강사** 정지윤(바이윤마크라메 대표)
- **수강료** 1만 원(재료비 2만 원)

드로잉 '가을날의 드로잉'

- **일시** 10. 15.(금) 14:00
- **강사** 리모(여행 작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 **수강료** 1만 원

People & Commune

문화가 꽃피는 매력도시 달서
예술의 향연 속으로

본리어린이공원

INTERVIEW 1

일상 속 예술 무지개를 띄우다

브리즈뮤지컬컴퍼니
손현진 대표

웃는얼굴아트센터 상주단체로 선정된 '브리즈뮤지컬컴퍼니' 손현진 대표는 문화가 흐르는 달서를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다. 웃는얼굴아트센터와 기획 공연을 만들 때도 그는 누구보다 지역의 다양성이 공연에 꼭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지역에 새로운 문화 바람을 만들고 있다.

뮤지컬 배우로 시작해 뮤지컬 단체를 창단했어요.

뮤지컬 배우를 꿈꾼 건 우연이었어요. 누워있는데 라디오에서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이 귓가를 타고 들어왔어요. 마음을 울리는 가사에 뮤지컬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SBS 〈스타킹〉에 출연해 뮤지컬킹으로 이름을 알렸죠. 10년 정도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5명의 예술가가 모여 '브리즈뮤지컬컴퍼니'를 창단했습니다. 현재는 30여 명이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어요.

웃는얼굴아트센터 상주단체로 활동 중이에요.

저희에게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남다른 애정이 깃든 곳입니다. 2018년 브리즈뮤지컬컴퍼니 창단 첫 창작극 〈더 브리즈〉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에서 공연했어요. 그로부터 딱 3년 후,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상주단체가 되어 활동 중입니다.

달서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가요.

달서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문화 자원이 다채롭다는 점이에요.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지역민을 반기는 월광수변공원, 월곡역사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은 물론이고, 조선시대 의병장 월곡 우배선 장군 등을 기리는 역사 자원도 풍부하죠. 대구·경북에서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 수도 높은 편이에요. 달서구의 색을 공연을 통해 선보여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브리즈뮤지컬컴퍼니가 어떤 단체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단체의 슬로건은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입니다. 예술가의 만족, 개인의 유희를 넘어 예술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요.
성희롱 예방, 성인지 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특히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을 '뮤지컬'이라는 예술 공연과 접목한 콘텐츠는 경상북도 교육청 등 약 500여 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선보이고 있어요. 관객들도 의무교육을 듣는 동시에 뮤지컬을 관람하는 셈이니 만족도가 높아요. 지난 2020년에는 OTT서비스 '에듀플랙스' 앱을 개발했어요. 덕분에 타 지역에서도 우리 공연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2021년도 계획이 궁금해요.

지난 8월, 〈그대 이름은 장미〉라는 공연을 선보였어요. 다문화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이야기였는데, 달서구 이주 노동자가 힘과 희망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공연이었어요. 이후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구 전체 다문화센터와 연계해 대구에 문화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지역민 모두가 화합하는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위해 배우들이 열심히 악기 연습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를 담은 저희 공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INTERVIEW 2

현대무용 문턱을 낮추고

카이로스댄스컴퍼니 **김영남** 대표

40년이 넘는 시간을 달서구에서 산, 그야말로 달서인인 무용가 김영남. 현대무용,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한 무대에 선보이는 카이로스댄스컴퍼니의 대표다. 얼마 전, 달서문화재단의 아모르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배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카이로스댄스컴퍼니에 모였다고요.

대구시립예술단 단원으로 10여 년간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현역이던 시절에는 현대무용 한 길만 내다봤어요. 관객에게 현대무용이라는 장르와 작품을 잘 선보이고 싶은 의욕이 컸죠. 아버지가 서양악기를 전공하셨고, 동생은 국악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현대무용 외에 다른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지역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다양한 장르를 한 무대에 녹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카이로스댄스컴퍼니를 만들게 됐어요. 국악, 재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완성도 높은 무대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무대를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현대무용을 전공했던 제가 연출을 하다 보니 현대무용을 베이스로 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현 시대에 맞는 변화, 새로운 장르가 융합된 무대를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관객들이 작품을 더 좋아해주세요.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다양한 미디어로 접한 친숙한 무용을 보면 반가워하고,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회문제를 작품으로 녹여내 대중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술가라면 사회문제나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전 대구무용제에서 수상을 하게 된 작품도 권력을 쫓는 인간의 형태, 그 속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의 군상을 표현해낸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작품 속에 녹여냈지만 N번방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10대 청소년들은 IT기기와 함께 성장해 왔잖아요. '만약 내가 지금의 10대였다면?'이란 생각을 하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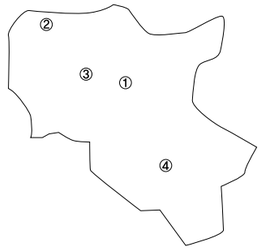
달서문화재단 후원회 아모르 소사이어티에도 가입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모르 소사이어티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기부 문화를 정립하는 모임이에요. 아모르 소사이어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문화예술을 위한 걸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됐어요.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펼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코로나19로 예술가들의 길이 막히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아모르 소사이어티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달서구에서 활동해 온 예술가로서 달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40년 정도 달서구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에요. 달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문화 콘텐츠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각 시대마다의 특별한 콘텐츠들은 달서의 문화를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또, 요즘엔 '성서공단의 타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달서구는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얼마 전, 성서공단에 있는 회사 모임으로부터 공연을 해줄 수 있냐는 문의를 받았어요. 회사 직원들에게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문화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문화 향유에 대해 고민하게 됐거든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달서구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예술이 생활 속으로
달서구 우리동네미술 프로젝트



달서구 공원에는 아름다운 예술 벤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달서문화재단이 주관한 '우리동네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예술계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예술가에게는 고용 창출의 기회를, 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리어린이공원, 배실웨딩테마공원, 월광수변공원, 웃는얼굴아트센터 등 달서구를 대표하는 공원과 랜드마크에 전시된 아트 벤치들은 일상 속 예술 쉼터를 만들어 문화가 넘실대는 달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리어린이공원
본리동 88-4
①

배실웨딩테마공원
이곡동 260
②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회관길 160
③

월광수변공원
월곡로 5
④

꿈은 이루어진다

100개의 일반 벤치 사이에 위치한 '꿈은 이루어진다'. 이 작품은 많은 나무들 사이 예술적인 조형미를 부각시킨 벤치를 두어 실용성과 조형성을 함께 살렸다. 주변 환경과 조경의 조화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작가 권기자(보조작가 : 박은수, 김조은, 전태희, 윤우진, 한주형)
작품 규격 4,200×2,800×900mm

별과 달을 보다

대리석과 스테인레스, 나무판재를 접목한 작품인 '별과 달을 보다'. 재료적 특성의 이질성을 해소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 전망 좋은 산책로를 지닌 배실웨딩테마공원의 장점을 한껏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 강동구(보조작가 : 방복희, 한영희, 남명옥)
작품 규격 4,000×1,500×2,300mm

공원을 품다

달서구의 예술이 꽃피는 곳,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설치된 '공원을 품다'는 아트센터의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한다. 웃는얼굴아트센터과 잘 어우러지도록 건물의 색상, 디자인을 맞춰 제작됐다. 밤에는 벤치에 설치된 LED 조명으로 아름다움이 두 배가 된다.

작가 김종언(보조작가 : 이남원, 박경희, 김진영, 강정주, 김은아)
작품 규격 75,000×3,500×750mm

사랑을 위하여

저수지 둘레길 입구의 언덕에 위치한 '사랑을 위하여'는 자연석의 곡선미를 살리고 부드러움을 강조한 작품이다. 저수지로 인해 습기에 강한 대리석과 자연석을 사용했으며, 저수지를 바라보는 수달의 귀여움이 한껏 돋보인다.

작가 정혜정(보조작가 : 김소현, 남경숙, 신유정, 장욱준, 김정태)
작품 규격 2,400×2,200×1,700mm

월광의 바다

'월광의 바다'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된 작품이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짐과 동시에 예술적 감수성을 안고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도 제공한다.

작가 박종규(보조작가 : 정혜경, 김은실, 정연주, 김현미, 김진혁)
작품 규격 2,500×400×430mm

천년을 웃는다

잔디가 있는 공간에 설치된 '천년을 웃는다'는 조형물 형식을 최대한 절제해 월광수변공원의 중요한 쉼터로 자리매김했다. 공원 광장에 위치한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아트 벤치의 높은 활용성을 보인다.

작가 서규식(보조작가 : 김민수, 류승희, 장용근, 김회원, 권대훈)
작품 규격 1,500×400×750mm

발행인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발행처
(재)달서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2F 문화정책실(053-584-9715)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기획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위원
김영남, 김옥렬, 박경숙, 박지운, 이성욱,
이창원, 임헌우, 채재휘, 최재수, 최현묵
※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디자인/제작
멀티애드(053-751-6562)

2021 NO.13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달서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달.서.문.화.만.개.

달서문화재단